

與野, 성탄절 맞아 “국민 안전·민생 지키겠다” 입 모아 약속

**與 “예산안 적시적소에 쓰이게 尹 정부와 살피겠다”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정”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통해 정부 책임 철저히 규명”
“취약계층에게 막막한 성탄...민생 살뜰히 챙기겠다”**

여야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양극화 국민회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사랑과 평화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2년 한해도 어느덧 세밑으로 접어들었다.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교체를 이뤄주셨고, 뒤를 이은 지방선거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와 여름 수해의 비극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면서도 “봉화 광산 광부의 지적

같은 생환 소식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은 우리 국민께 큰 감동과 희망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도 많이 있다”며 “유난히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위해 적시적소에 쓰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남아있다”며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법안들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방향,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누리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365일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방역지침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은 성탄절 전야에는 한파에도 인파가 가득했다. 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막막한 성탄절”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두 달이 되어가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해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늦었지만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상황의 여파로 삶의 고됨과 막막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 꺼져가는 경제 엔진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도, 해법도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도 쌓여가고 있다”며 윤 정부를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선 “지난 금요일, 여야가 어렵게 예산안을 합의하려 했다”며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추자 감세만을 고집하는 윤 정부로부터 민생예산을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민생을 더욱 살뜰히 챙기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檢 칼바람 속 내달 2일 文 면담 추진...봉하마을도 갈 듯

민주당 지도부, 부산·울산·경남 경청투어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영남을 택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번 방문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들러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두 사람이 나눌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 등은 다음달 2일 부산·울산·경남 경청투어를 추진 중이다. 부산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계획됐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번 방

문길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김해 봉하마을도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고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만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 등에 대해선 “최근 검찰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라

기 보다는 연초마다 인사드리러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지는 알 수 없지 않다. 검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얘기를 위해 만나는 거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물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해석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와 팬 카페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압박을 가리킨 것이며 이를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결집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자진사퇴 후 검찰 수사에 응해 결백을 입증한 뒤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도 거론하는 등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민주연구원 새 원장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이 내정된 것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 민주당 파괴, 정책 제거 등으로 규정하고 계파 구분 없이 ‘단일대오’로 맞서기 위한 통합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 바 있다.

김재환기자

與 “野 신현영 ‘닥터카 갑질’ 국정조사해야”

“징계·국정조사에서 진상 조사돼야”



길이다”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신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응급센터와 의료기관 간 전용 ‘재난 핫라인’으로 자신의 집앞까지 닥터카를 콜백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춘각을 다

국민의힘은 25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 논란이 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극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신현영 의원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에 부합하는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